

한·중·일 성경의 성서 히브리어 ‘베라크’(ברך) 이해 - ‘축복하소서’인가 ‘복을 내리소서’인가 -

이환진*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흔히 “하느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한다. ‘복을 내려달라’는 뜻이다. 또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빌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는 ‘복을 내리다’와 ‘복을 빌다’라는 뜻으로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또한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¹⁾ 또한 ‘축복’(祝福)이라는 명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1) 남 또는 남의 일이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그것을 기뻐하여 축하함.

“그 부부는 부모님의 축복도 받지 않고 결혼했지만 잘 살고 있다.”

(2) [기독교][천주] 하느님이 복을 내림. 또는 그 복.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일상어뿐만 아니라 사전에서도 ‘축복’을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이 글은 이러한 용례뿐만 아니라 한문성경과 중문성경 그리고 일어성서의 예를 통하여 ‘축복하다’라는 말을 ‘복을 빌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글이다.

2. 한글성경의 ‘복’과 ‘축복’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서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인터넷에서 검색.

한글성경을 읽어보면 복을 내려달라는 뜻으로 “축복하소서!”라고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창세기 12:3에서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는 장면을 읽어보자.

『성경전서』(1911)

너를 위하야 복을 비는 자의게는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업수히 녀이논 자의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싸에 모든 족속이 다 너를 인하야 복을 얻으리라

『성경 개역』(1938)

너를 축복하는 자의게는 내가 복을 나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의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싸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개역한글판』(1961)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새번역』(2001)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공동번역 개정판』(1999)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위의 다섯 한글성경은 모두 공인역인데 “축복”은 ‘복을 빌다’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반면 ‘복을 베풀다’(새번역)나 ‘복을 내리다’(성경전서[구역], 개역한글, 공동개정)는 말은 ‘축’(祝) 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복’ 앞에 붙어 있는 ‘축’ 자는 ‘빌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곧 한글성경은 전통적으로 ‘축복’과 ‘복’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두 표현 모두 히브리어 ‘베라크’(*ברך) 동사를 번역한 경우이다.¹⁾ 이러한 용례는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에

1) 이 동사는 ‘베레크’(bērēk)의 형태가 등장하기도 한다. HALOT 160을 참조하라.

서 ‘축복하다’는 말을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3. 한문성경 『대표본』의 ‘복’(福)

먼저 한문성경은 ‘복’을 어떤 용어로 사용할까? 한문성경 가운데 『대표본』(代表本, 1854)을 예로 들어보자.²⁾ 시편 1편은 ‘하늘이 내리시는 복’이라는 뜻으로 “복지”(福祉)라는 말을 사용한다.³⁾

惡者之謀兮弗從， 罪人之途兮弗蹤
侮慢之位不居兮， 福祉來降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하늘의 복이 내려와 임하리라.

또한 ‘복’(福)이란 말은 여러 수식어가 붙어 『대표본』(1854)의 시편 다른 곳에도 자주 등장한다.

『대표본』 시편 16:5
我得耶和華以爲眞福， 如酒之盈樽兮
所得之福， 既永且久， 爾使之然兮
내 차지 야훼를 참된 복으로 여기죠.⁴⁾
마치 술이 가득한 잔과 같군요.
언은 복은 아주 오래 갈 것입니다. 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대표본』 시편 17:14
爾其免我， 乃彼至今兮
反得福祉， 富有兮豐亨

2) “한문 타르굼”(Old Chinese Targum)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이 성경의 번역 성격에 대해서는 이환진, “한문성경 『대표본』(1854)의 번역 성격 - 전도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0 (2012), 1-20을 보라. 또한 이환진, 『구약성서 속에서 노닐다』(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1), 36쪽도 참조하라.

3) 참고로 『시경』의 주송(周頌)에 들어 있는 “烈文”(열문)이라는 시에는 “錫茲祉福”(석자지복)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대표본』 시편 1편은 “지복”(祉福)을 “복지”(福祉)로, 낱말의 순서만 바꾸어 사용한 경우인 듯하다.

4) 『대표본』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耶和華”(여호와)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하의 모든 번역에서 “야훼”로 바꾸어 읽기로 한다. 한문 번역을 일일이 확인해주신 김상기 박사께 감사드린다.

님은 나를 구해 주시죠. 그러나 저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군요.
오히려 복을 얻었어요. 부유해요. 맘껏 누리는군요.

『대표본』 시편 21:6

錫永福而加眷顧, 使其欣喜兮

영원한 복을 내리시고 보살펴주시기까지 하는군요.

그래서 기뻐하게 하시네요.

『대표본』 시편 34:10

求耶和華者, 百福來同兮

야훼께 구하는 이에게는

온갖 복이 함께 찾아오리라.

『대표본』 시편 34:11-12

爾小子聽之, 我將以畏耶和華之道示爾兮.

得享遐齡, 納多福

애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훼 경외의 길[道]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장수하리라. 수많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이라는 말은 “진복”(眞福, 16:5)이나 “영복”(永福, 21:6) 또는 “백복”(百福, 34:10) 이나 “다복”(多福, 34:12)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또한 “복호”(福祐, 17:4)라는 말이 쓰이기도 한다.⁵⁾ ‘복’(福)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냥 “복”(福, 16:5)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시편 32편이 그렇다.

『대표본』 시편 32:1-2

人得赦其過, 而蓋其愆者福兮

人不爲耶和華所罪, 其心無僞者福兮⁶⁾

잘못을 용서받고 허물이 덮인 사람은 복이 있다.

야훼께서 죄지었다 하지 않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5) “祐”(호)가 ‘복’이라는 뜻으로 등장하는 예로는, 『詩經』(大雅 文王之什)의 “下武”(하무)라는 시에 ‘천년만년 하늘의 복 받으시리라’는 뜻으로 “於萬斯年, 受天之祐”(여만사년 수천지호)라는 표현이 있다. 金學主, 『新完譯 詩經』, 改訂增補版(서울: 명문당, 2002), 554 참조.

6) 이 경우 히브리어는 시편 1:1과 똑같이 ‘아슈레이’(אשראי)이다.

4. 한문성경 『대표본』(1854)의 ‘복을 빌다’[祝]

그런데 ‘복을 빌다’라는 말을 『대표본』은 어떻게 표현할까?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복을 비는 장면에서 “축하”(祝嘏)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표본』 신명기 33:1
事上帝之人摩西
其未沒時爲以色列族祝嘏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인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렇게 신명기는 ‘빌다’라는 뜻으로 ‘축’(祝) 자를 사용한다. 이 말에 『대표본』(1854)이 좋아하는 “하”(嘏) 자를 결합하여 ‘복을 빌다’라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예는 역대기에도 나온다.

『대표본』 역대하 31:8-10
希西家與羣伯入，見物成邱
頌耶和華，爲以色列民祝嘏。
問祭司利未人曰，何從積之若邱如此耶。
撒督族祭司長亞薩哩亞對曰，
耶和華錫嘏於民，民獻禮物於殿，
我儕食有贏餘，此特其餘耳。
히스기야와 관료들이 들어와서 언덕을 이룬 물건을 보고는
야훼를 찬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묻기를
‘어떻게 언덕처럼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나요?’
사독 제사장 아사라가 대답하기를
‘야훼께서 백성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성전에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먹고도 여유가 있군요.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길게 인용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찬양하다’라는 뜻의 “頌”(송)과 ‘복을 빌다’라는 뜻의 “祝嘏”(축하)가 나란히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복을 내리다’라는 뜻의 “錫嘏”(석하)도 함께 나온다.⁷⁾ 사실 “頌”(송)과

7) “錫嘏”(석하)라는 표현은 『대표본』 창세기 2:3과 출애굽기 20:11에도 같은 뜻으로 나온다. ‘복’이라는 뜻의 “嘏”(하) 자는 『詩經』(駟之什)에 들어 있는 “闕宮”(비궁)이라는 시에도 “天

“祝嘏”(축하)는 한 낱말을 두 번 읽은 것이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히스기야와 관료들이 …) 찬양했다. 하느님을.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찬양했다’를 “송”(頌)으로 먼저 읽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는) 복을 빌었다’라는 뜻으로 “축하”(祝嘏)로 읽은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히브리어는 ‘베라크’(*ברך)라는 동사이다. 그런데 이렇게 달리 읽었다. 그런데 같은 동사가 뒤에서는 또 ‘복을 내리다’라는 뜻의 “석하”(錫嘏)로도 읽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는 말은 바로 ‘(복을) 빌다’라는 뜻의 ‘축’(祝) 자이다. “錫嘏”(석하)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 뜻이 다르다. “석하”(錫嘏)는 ‘복을 내리다’라는 뜻이고 “축하”(祝嘏)는 ‘복을 빌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 축(祝)’ 자를 사용한 곳이 또 있다.

『대표본』 창세기 49:28

此皆以色列十二支派, 其父爲之祝嘏

各依其祚, 而禱其福

이처럼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아버지가 복을 빌었다.

각각 받을 복에 따라 그 복을 빌었다.

야곱이 열두 지파에게 복을 비는 내용을 마무리하는 문장이다. 여기서는 ‘복’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 용어로 등장한다. “嘏”(하)와 “祚”(조)와 “福”(복)이라는 말이다. 맨 앞의 경우는 “祝嘏”(축하)라는 형태로, 맨 뒤의 경우는 “禱福”(도복)이라는 형태로 등장한다. 둘 다 히브리어 동사 ‘베라크’(*ברך)를 읊긴 말이다. 그리고 가운데는 그냥 “祚”(조)인데,⁸⁾ 히브리어 명사 ‘베라카’

錫公純嘏”(천석공순하)라고 하여 ‘하늘이 임금에게 큰 복을 내리신다’라는 뜻으로 등장한다. 또한 『詩經』(大雅 生民之什)의 “卷阿”(권아)라는 시에도 ‘티 없는 맑은 복을 영원토록 누리시리라’는 뜻으로 “純嘏爾常矣”(순하이상의)라고 하여 “純嘏”(순하)가 같은 뜻으로도 등장한다. 그리고 『詩經』(小雅 甫田之什)의 “賓之初筵”(빈지초연)이라는 시에도 “純嘏”(순하)가 “錫爾純嘏, 子孫其湛”(석이순하 자손기담)라는 문맥에 등장한다.

『대표본』 시편 5:12에도 “爲義之人, 耶和華錫以純嘏, 施以鴻恩”(위의지인 야화화석이순하 시이홍은)이라는 문맥에 “純嘏”(순하)라는 같은 말이 쓰이기도 한다. 또한 시편 28:9에도 “拯以選民, 錫以純嘏”(증이선민 석이순하)라는 같은 말이 등장한다. 히브리어로는 ‘베라크’(*ברך)라는 말을 모두 이렇게 읽은 것이다.

그런데 이 “錫嘏”(석하)는 『대표본』에서 ‘내리신 복’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편 34:8이 이 경우이다. “賴之者, 蒙其錫嘏兮”(뢰지자 몽기석하혜)라고 하여 ‘그를 신뢰하는 이는 내리신 복을 받습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물론 이 경우는 시편 1:1과 똑같은 ‘아슈레이’(אשרי)이다. 이외에도 창세기(24:1, 24:35, 28:6)와 출애굽기(23:25)와 신명기(2:7; 7:14; 12:7; 15:6; 15:14, 18) 그리고 여호수아(17:14)와 사무엘하(6:12)와 이사야(61:9)와 욥기(42:12) 등에서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경우는 히브리어가 모두 ‘베라크’(*ברך) 동사이다.

(*ברכה)를 옮긴 말이다.

이 가운데 ‘복을 빌다’라는 뜻의 “祝嘏”(축하)라는 표현은 『대표본』 창세기 27장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4절과 7절과 10절이 그 경우이다.⁹⁾ 그런데 이렇게 ‘복’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특이하게 강조하는 형태로 등장하는 곳은 시편 147편이다.

『대표본』 시편 147:13

爾之門楗, 既堅其固

爾之人民, 錫福錫祉, 主使然兮

그대의 문빗장이 튼튼하고 견고하길

그대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길

주께서 그렇게 하시길-

이 기도문에 등장하는 표현은 “錫福錫祉”(석복석지)이다. “석복”(錫福)과 “석지”(錫祉)로 나누어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둘 다 ‘복을 내리다’라는 뜻이다. ‘베라크’(*ברך)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이렇게 강조하여 두 번 읽은 것이다. 이렇게 ‘복을 내리다’라는 말을 할 경우 『대표본』(1854)은 “錫”(석) 자를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대표본』의 신명기의 경우 ‘축’(祝) 자에 ‘복’(福) 자를 더하여 ‘복을 빌다’라는 뜻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대표본』 신명기 24:13

日入時必反之

使衣衣而寢

後祝福於爾

則爾上帝耶和華必以爲義

해가 들어갈 때 반드시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옷을 입고 자도록 말이다.

그런 뒤 그가 그대를 위해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를 하느님 야훼께서 부르다고 여기실 것이다.

8) 『詩經』(大雅 生民之什)의 “既醉”(기취)라는 시에는 ‘복’이라는 뜻의 “祚”(조)와 관련하여 ‘님에게 영원토록 복과 자손 내려주리라’는 뜻으로 “君子萬年, 永錫祚胤”(군자만년 영석조윤)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金學主, 『新完譯 詩經』, 567-568 참조.

9) 하지만 창세기 27:27에서는 “錫嘏”(석하)가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창세기 28:1과 28:6에서도 “祝嘏”(축하)가 등장하다가 창세기 28:3에서는 “錫嘏”(석하)가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창세기 28:4에서는 “嘏錫”(하석)이 쓰이기도 한다. 물론 가운데 곧 “祚”(조)가 등장하는 곳에서는 이 동사의 명사 형태인 ‘베라카’(*ברכה)를 이렇게 옮긴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축복’(祝福)은 분명히 ‘복을 빌다’라는 뜻으로 등장한다. 히브리어 동사 ‘베라크’(*ברך)를 옮긴 것이다. “祝”(축) 자가 ‘빌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또한 창세기를 읽어보아도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

『대표본』 창세기 27:26-27

以撒曰, 爾來, 與我接吻

遂前吻父, 父聞其衣馨香

祝曰耶和華錫嘏於田

使之馨香, 吾子之馨香亦若是

이삭이 말하기를 ‘얘야, 오너라. 나와 입 맞추자.’

이에 아버지에게 입 맞추기 전에 아버지는 그 옷의 향내를 맡고

복을 빌어 말하였다.

‘야훼께서 밭에 복을 내리셔서 그 밭을 향기롭게 하셨으니

내 아들의 향기도 것처럼 되게 하소서.’

뒤의 “錫嘏”(석하)는 물론 ‘복을 내리다’라는 뜻이지만, 앞의 ‘축’(祝)은 ‘(복을) 빌다’라는 뜻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축’(祝) 자는 분명히 ‘복을 빌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둘 다 ‘베라크’(*ברך) 동사를 옮긴 것이다. 시편 109편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읽어볼 수 있다.

『대표본』 시편 109:17

彼惟詛人是喜, 願彼亦服咒詛兮

彼不爲人祝福, 願福祉不及其躬兮

그는 사람에게 저주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그 또한 저주를 옷 입기 바랍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지 않습니다.

그 몸에 복이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5. 한문성경 『대표본』의 ‘복을 내리다’[祝]

그런데 『대표본』이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祝”(축) 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민수기를 읽어 보자.

『대표본』 민수기 23:20

我受命以祝嘏

上帝祝之, 我難反之
 나는 명을 받았습니다. 복을 빌라고-
 하느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나는 그분을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발람이 하는 이야기이다. 발락이라는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명을 받는다. 하지만 하느님이 복을 내리시니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축”(祝) 자가 두 가지의 뜻으로 사용된다. 앞의 경우는 “祝嘏”(축하)라고 하여 ‘복을 빌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이고 뒤의 경우는 “祝之”(축지)라고 하여 ‘그들에게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이다.¹⁰⁾ 그러니까 “축”(祝) 자가 ‘(복을) 빌다’와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민수기 23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본』 창세기 27:29
 詛爾者必見詛, 祝爾者必見祝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祝”(축) 자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앞의 “祝”(축)은 ‘복을 빌다’이고 뒤의 “祝”(축)은 그냥 ‘복을 주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앞의 “見詛”(견저)와 뒤의 “見祝”(견축)의 “견”(見)은 수동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¹¹⁾ 따라서 뒤의 “見祝”(견축)은 ‘복을 받는다’라고 읽을 수 있다. 시편에도 같은 용례가 나온다.

『대표본』 시편 45:2
 王兮, 爾較世人, 尤爲美兮, 口出嘉言
 上帝祝汝, 永世靡暨兮
 임금이여,

10) 『대표본』 시편 21:13에도 똑같이 “祝之”(축지)라는 표현이 “耶華和兮, 施其力, 當頌美之, 我將謳歌以祝之兮”라는 문맥에서 등장한다. ‘야훼는 힘을 주십니다. 님을 찬미하는 일을 마땅합니다. 나는 노래 부르렵니다. 그리고 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祝之”(축지)의 “祝”(축)은 분명히 ‘(하느님께) 빌다’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하느님께) 고하다’나 ‘(하느님께) 경하하다’ 또는 ‘(하느님께) 하례하다’라고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祝”(축) 자가 꼭 ‘빌다’라는 뜻으로만 사용되지는 않는다.

11) 金元中 編著, 『虛辭大辭典』(서울: 현암사, 2007), 70-74 참조.

그대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입에서는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군요.
 하느님이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죠. 영원토록-

왕의 결혼식 장면을 그리고 있는 이 시편은 하느님이 왕에게 복을 내린다는 말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여기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뜻으로 “祝汝”(축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게 “祝”(축) 자는 여기서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창세기 12장에서도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축’(祝) 자를 사용한다.

『대표본』 창세기 12:2-3

我將使爾後成爲大邦, 錫嘏於爾

畀爾顯名, 必蒙綏祉

祝爾者吾亦祝之, 詛爾者吾亦詛之

天下兆民, 將藉爾受福焉

나는 네가 나중에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네게 빛나는 이름을 주리라.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나 또한 복을 내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 또한 저주하리라.

천하 만민이 네가 받은 복을 누리리라.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소명 장면으로 유명한 부분이다. “錫嘏”(석하)나 “綏祉”(수지)¹²⁾ 또는 “受福”(수복)이란 표현 가운데 “嘏”(하)와 “祉”(지)와 “福”(복)이 바로 ‘복’을 뜻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표현은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나 또한 복을 내리리라”[祝爾者吾亦祝之]라는 표현이다.¹³⁾ 여기서 앞의 “祝”(축)은 ‘복을 빌다’라는 뜻이고 뒤의 “祝”(축)은 ‘복을 내리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강희자전』(康熙字典)이나 모리슨의 『화영자전』(華英字典)은 ‘축복’(祝福)이 ‘복을 빌다’나 ‘신께 감사하다’라는 뜻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⁴⁾ 하지만 1866-1869년에 룩샤이드(W. Lobscheid)가 출간한

12) 『詩經』(國風 周南)에도 ‘복’과 관련하여 “樛木”(규목)이라는 시에 “樂只君子, 福履綏之”(낙지君子, 복履綏之)(낙형군자, 복이수지)라는 표현이 나온다.

13) 히브리어로는 “ואברכה מברכך”(və'ābārēkāh mēborkeykā)라고 하여 두 말 모두 ‘베라크’(*ברך)라는 동사가 사용된다.

14) 『康熙字典』, 午下 十六과 Robert Morrison(马礼逊), 『华英字典 2(影印版)(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郑州市: 大象出版社, 2007), 772를 보라.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의 ‘to bless’ 항목에는 ‘축복’(祝福)이라는 말을 『대표본』의 쓰임처럼 둘로 설명한다.¹⁵⁾ 하나는 ‘(하느님이) 복을 베풀다’(to confer happiness, as God)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를 위해) 복을 빌다’(to pronounce a wish of happiness to one)이다. 그리고 ‘복을 베풀다’라는 표현으로 『대표본』의 용례와 비슷하게 “강복”(降福)이나 “석복”(錫福) 또는 “시복”(施福)이나 “사복”(賜福)과 같은 뜻으로 설명한다.

6. 현대 중문성경의 ‘복’과 ‘축복’

그런데 현대 중문성경에서도 ‘축복’(祝福)이 ‘복을 빌다’와 ‘복을 내리다’라는 두 가지의 뜻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다. 지금 중국의 개신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합본』(和合本, 1919)은 우리 한글성경과 똑같이 “福”(복)과 “祝福”(축복)이라는 말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화합본』 창세기 12:3

為你祝福的, 我必賜福與他

那呪詛你的, 我必呪詛他

地上的萬族都要因你得福

너를 위하여 복을 비는 이는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이는 내가 반드시 그를 저주하리라.

지상 모든 민족이 모두 너 때문에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을 비는 이’라는 뜻으로 “祝福的”(축복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복을 얻다’라는 뜻으로는 “得福”(득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1968년에 나온 중국 가톨릭교회의 『사고역본』(思高譯本)은 사정이 다르다.¹⁶⁾ 같은 구절을 읽어보자.

典编辑室 编, 『现代汉语词典』, 第六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2, 1705를 보라. 또한 任继愈主编, 『宗教词典』(修订版)(上海: 上海辞书出版社, 2009), 775도 참조하라. 민중서림 편집국 편, 『漢韓大字典』, 전면개정 · 증보판(서울: 민중서림, 1997), 1473도 보라. 재미난 사실은 이 자전은 “축도”(祝禱)라는 용어를 설명하면서 “기독교(基督教)에서 목사(牧師)가 하느님께 축복(祝福)을 비는 의식(儀式)”이라고 하여 “축복을 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15) W. Lobscheid, 『英華字典(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Hong Kong: Daily Press, 1868), 200. 이 자료를 알려준 전무용 박사께 감사드린다. 또한 전무용, “그리스도교 용어와 한자어에서 빌려온 용어”, 『신학비평』 51 (2013), 49-52을 참조하라.

『사고역본』 창세기 12:3
 我要祝福那祝福你的人
 咒骂那咒骂你的人
 地上万民都要因你获得祝福
 나는 너를 축복하는 이에게 축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이에게는 저주하리라.
 지상의 만민이 모두 너를 인하여 축복을 얻으리라.

이 중국 가톨릭교회 성경은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도 “祝福”(축복)이라고 표현하고 하느님이 사람에게 내리는 복도 “祝福”(축복)이라고 표현한다. 곧 ‘복’과 ‘축복’이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개신교회의 성경인 『화합본』(1919)이 20세기 초반에 나오고 『사고역본』(思高譯本, 1968)이라고 부르는 중국 가톨릭교회의 성경이 20세기 후반에 나온 때문일까? 곧 시간이 흘러서 두 낱말이 쓰일 때 엄격한 구별이 없어진 것일까? 특별히 ‘빌다’라는 뜻의 “祝”(축) 자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 때문일까? 이러한 사정은 창세기 27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번 읽어보자.

『화합본』 창세기 27:29b
 凡咒詛你的, 願他受咒詛
 爲你祝福的, 願他蒙福
 너를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 그가 저주를 받기 원한다.
 너를 위하여 축복하는 이는 그가 복을 받기 원한다.

『사고역본』 창세기 27:29b
 凡詛呪你的, 必受詛呪
 凡祝福你的, 必受祝福
 너를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이는 누구든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화합본』(1919)은 “祝福”(축복)과 “福”(복)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반면 중국 가톨릭교회 성경인 『사고역본』(1968)은 두 단어를 구분 없이 사용

16) 이 성경은 중국 가톨릭교회의 최초 완역 성경으로 『프란치스코회 성경』이라고도 부른다. 이 성경에 대한 평가로는 다음의 글을 보라. Arnulf Camps, “Father Gabriele M. Allegra, O.F.M. (1907-1976) and the *Studium Biblicum Franciscanum*: The First Complete Chinese Catholic Translation of the Bible”, Irene Eber, Sze-Kar Wan and Knut Walf, eds., *Bible In Modern China: The Literary and Intellectual Impact* (Sankt Augustin: Institut Monumenta Serica, 1999), 55-76.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 개신교회의 성경인 『화합본』(1919)은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¹⁷⁾ 이렇게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2010년에 『화합본 수정판』(신약)이 시편과 잠언과 함께 출판됐다.¹⁸⁾ 여기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이 수정판이 시편에서 ‘복’과 ‘축복’을 어떻게 고쳤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시편의 경우만 예를 들어보자.

『화합본』, 『화합본 수정판』 시편 45:2b

所以上帝賜福給你, 直到永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영원토록-

『화합본』, 『화합본 수정판』 시편 147:13

因為他堅固了你的門

賜福給你中間的兒女

그분은 너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

네 가운데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이렇게 시편 45편과 147편의 경우는 수정판이 『화합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수정판은 대부분 위의 예와 같다. 그런데 시편 109편의 경우는 다르다.

『화합본』 시편 109:17

他愛呪罵, 呪罵就臨到他

他不喜愛福樂, 福樂就與他遠離

그는 저주를 사랑한다.

그 때문에 곧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는 복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곧 복이 그를 멀리 떠날 것이다.

『화합본 수정판』 시편 109:17

他愛呪罵, 呪罵就臨到他;

他不喜愛祝福, 祝福就遠離他!

17) 이 역본의 개정 작업에 대한 중간 보고서로서는 다음의 글을 보라. Joseph Hong, “The Challenges of the RCUV Project - Revising Genesis as a case in point”, 『성경원문연구』(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17 (2005), 148-177.

18) 『圣经. 新約全書附 詩箴』, 和合本修訂版·新標點和合本 并排對照(上帝版)(香港: 香港聖經公會, 2010).

그는 저주를 사랑한다.
 그 때문에 저주가 곧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는 축복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축복이 곧 그를 멀리 떠날 것이다.

여기서 화합본이 “福乐”(복락)으로 읽은 것을 수정판이 “祝福”(축복)으로 바꾸어 읽은 것을 알 수 있다.¹⁹⁾ 여기서 “祝福”(축복)을 “福”(복)이라는 뜻으로 읽은 것이다. 같은 수정판인데 어떤 경우는 그냥 두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바꾸어 읽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일관성이 부족하여 생긴 현상일까? 그런 것 같지 않다. 『화합본』을 여러 현대 중국어 번역과 비교해 보면 같은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화합본』이 “복”(福)이라고 읽은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예로 읽어보자.²⁰⁾

『화합본』 히브리서 6:14

論福, 我必賜大福給你
 論子孫, 我必叫你的子孫多起來²¹⁾
 복으로 말하자면
 나는 반드시 큰 복을 너에게 내려 주리라.
 자손으로 말하자면
 나는 반드시 너의 자손을 많이 일으켜 세우리라.

『여진중역』 히브리서 6:14

我敢保我一定要給你祝福,
 我一定要使你的子孫增多
 나는 분명히, 나는 분명히 너에게 축복을 내리리라.
 나는 분명히, 너의 자손이 수 없이 늘어나게 하리라.

『사고역본』 히브리서 6:14

-
- 19) 『화합본 수정판』은 『화합본』의 시편 106:5와 잠언 24:25에 나오는 “福”(복)을 “福分”(복분)으로 바꾸어 읽기도 하였다. 그런데 『화합본 수정판』은 『화합본』의 시편 17:14; 73:26; 119:57; 142:5와 잠언 28:10에 나오는 “分福”(분복)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화합본』의 용례에 대해서는 刘重明 主编, 『经文汇编』(上海: 中国基督教叁自爱国运动委员会·中国基督教协会, 2011), 181을 참조하라.
- 20) 『新約聖經 并排版』(上海: 中国基督教叁自爱国运动委员会·中国基督教协会, 2012), 630-631 참조.
- 21) 『화합본 수정판』은 이 부분을 “我必多多賜福給你, 我必使你大大增多”(아필다다사복굽니 아필사니다다증다)로 읽었다. 곧 『화합본』을 따라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賜福”(사복)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我必多多祝福你,
 使你的后裔繁多
 나는 반드시 수도 없이 너를 축복하리라.
 너의 후예가 수없이 불어나게 하리라.

『당대복음』 히브리서 6:14
 論福, 我必大大賜福與你
 論子孫, 我必使你子孫昌盛
 복으로 말하자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엄청나게 복을 내리리라.
 자손으로 말하자면
 나는 반드시 네 자손이 창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14는 사실 칠십인역 창세기 22:17을 인용한 부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표현이 약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가톨릭교회의 성경인 『사고역본』(1968)은 위의 히브리서 6:14와 창세기 22:17을 똑같이 읽었다. 곧 구약과 신약 두 곳에서 모두 “축복”(祝福)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고역본』이 “복”(福)으로 읽은 것을 “축복”(祝福)으로 바꾸어 읽었다는 뜻이다. 곧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중국의 가톨릭 성경인 『사고역본』(1968)은 “축복”이라는 말로 ‘복을 내린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고역본』(1968)보다 약 10여년 일찍 나온 『여진중역』(1952) 또한 “축복”(祝福)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한다. 물론 이 역본의 경우도 ‘축복’은 ‘복’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75년에 나온 『당대복음』(當代福音)은 『화합본』과 같은 구조로 번역하면서 용어도 똑같이 사용하여 ‘복을 내린다’는 뜻으로 “賜福”(사복)으로 읽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대 중문성경에서는 ‘복’(福)과 ‘축복’(祝福)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래된 『화합본』(1919)이나 그 전통을 따른 『화합본 수정판』(2010) 그리고 『당대복음』(1975)도 대부분 ‘복’과 ‘축복’을 구분하여 읽는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나온 『여진중역』(1952)이나 『사고역본』(1968)은 ‘복’과 ‘축복’을 구분 없이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7. 현대 일어성서의 ‘축복’(祝福)

현대 중문성경과 비슷한 용례를 우리는 현대 일어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어성서 가운데 전후(戰後)에 나온 첫 공인역 성서로는 『구어역』(口語譯, 1955)이 있다.²²⁾ 그리고 한 해 뒤에는 개인번역으로 『관근정웅역』(関根正雄訳, 1956)이 나왔다. 이들 성서를 함께 읽어보자.

『구어역』 창세기 12:3

あなたを祝福する者をわたしは祝福し、
 あなたをのろう者をわたしはのろう。
 地のすべてのやからは、
 あなたによって祝福される。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는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축복을 받으리라.

『관근정웅역』 창세기 12:3

わたしは君を祝福する者を祝福する。
 君を呪う者をわたしは呪う。
 地のすべての種族は君によって祝福されるだろう。
 나는 그대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그대를 저주하는 자를 나는 저주한다。
 땅의 모든 종족이 너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이다。

1950년 중반에 나온 일어성서 『구어역』과 『관근정웅역』은 위의 한자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축복’이라는 말을 이미 ‘복’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공인역이든 개인역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일본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가 함께 펴낸 『신공동역』(新共同譯)도 이런 경향은 마찬가지이다.

『신공동역』 창세기 12:3

あなたを祝福する人をわたしは祝福し
 あなたを呪う者をわたしは呪う。

22) 이 부분에서 언급하는 여러 일어성서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보라. Doron B. Cohen, *The Japanese Translations of the Hebrew Bible: History, Inventory and Analysis* (Leiden: Brill, 2013), 50-144.

地上の氏族はすべて
あなたによって祝福に入る。
너는 축복하는 사람을 나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는 저주하리라.
지상의 씨족이 모두 너 때문에 축복에 이르리라.

『신공동역』(1988)은 특히 이 구절의 앞부분에서 『구어역』(1955)을 그대로 따른다. 다만 앞에 나오는 “자”(者) 자를 “인”(人) 자로 바꾸었을 뿐이다. 그리고 뒷부분의 “축복”(祝福)도 그대로 채용하여 읽는다. 다만 ‘축복을 받으리라’를 ‘축복에 이르리라’는 뜻으로 약간 달리 읽을 뿐이다. 곧 “축복”(祝福)이라는 말을 ‘복을 빌다’라는 뜻과 ‘복을 내리다’ 그리고 ‘복’이라는 세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가장 최근에 나온 『암파서점역』(岩波書店譯, 2004)도 마찬가지이다.

『구어역』 창세기 12:3
あなたを祝福する者をわたしは祝福し、
あなたを呪う者をわたしは呪う。
大地のあらゆる種族はあなた[の名]によって祝福しであろう。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는 저주하리라.
대지의 모든 종족이 너[의 이름] 때문에 축복을 받으리라.

여기 앞부분은 위의 『구어역』과 똑같다. 곧 ‘축복’을 ‘복을 빌다’라는 뜻과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읽는다. 다만 뒷부분의 번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복’이라는 뜻으로 ‘축복’(祝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두 일어역 성서와 똑같다. 이러한 점은 신약 히브리서를 읽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구어역』 히브리서 6:14
わたしは `必ずあなたを祝福し、
必ずあなたの子孫をふやす
나는 반드시 너에게 축복하여
받드시 너의 자손을 늘리리라.

『신공동역』 히브리서 6:14
わなしは `必ずあなたを祝福し、
あなたの子孫を大い増やす

나는 반드시 너를 축복하여
너의 자손이 크게 늘리리라.

두 일어성서 모두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축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히브리서 6:14는 창세기 22:17을 인용한 것인데 『암파서점역』(岩波書店譯, 2004)으로 창세기를 읽어보자.

『암파서점역』 창세기 22:17
必ずや `わたしはあなたを祝福し、
あなたの子孫を天の星ように、
海辺の真沙のように多くするであろう。
반드시 나는 너를 축복하여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어 일어성서는 한결같이 ‘축복’을 ‘복’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축복한다’를 ‘복을 빌다’와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최초의 일어 완역성서인 『문어역』(文語譯, 1887)은 ‘축’(祝) 자를 ‘(복을) 빌다’와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문어역』 창세기 12:2-3
我汝を大なる國民も成し
汝を祝み汝の名を大ならしめん
汝[]祉福の基もなろべし²³⁾
我[]汝を祝すろ祝し汝を詛ふ者を詛へん
天下の諸の宗族汝により福祿を獲も²⁴⁾
나 - 너를 큰 국민이 이루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라.
너 - 지복의 토대가 되리니
나 - 너를 축복하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천하의 모든 종족이 너 때문에 복을 얻으리라.

23) “너는 지복의 토대가 되리라”[汝()祉福の基もなろべし]는 표현이 특이한 점은 한글 『개역』(1938)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표현과 닮은 점이다. 일어성서 『문어역』(1888)의 “지복의 토대”[祉福の基]라는 표현은 한문성경 『브리지만-결벗슨역』(1865)의 “복의 토대”[福之基]라는 표현을 거의 그대로 따른 듯하다.

24) 본문 속의 꺾쇠괄호([])는 무슨 글자인지 잘 알 수 없어 남겨둔 것이다.

이 역본이 특이한 점은 ‘축’(祝) 자를 ‘복을 빌다’와 ‘복을 내리다’라는 두 뜻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줄의 “汝を祝み”와 넷째 줄의 “祝し”은 ‘(너에게) 복을 내리다’는 뜻이다. 그리고 넷째 줄의 “汝を祝す”는 ‘너를 위해 복을 빌다’라는 뜻으로 ‘축’(祝) 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문어역』(1888)을 읽어보면 일본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축’(祝) 자를 두 가지 뜻으로 모두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한문성경 『대표본』(1854)이나 『브리지만-컬벳슨역』(1865)의 영향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현대 일어성서는 이러한 전통을 따라 ‘축복’(祝福)을 ‘복을 빌다’와 ‘복을 내리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한 듯하다.

8. 나가는 말

앞서도 언급했듯이 한글성경은 일관되게 ‘축복’과 ‘복’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축복’이라는 용어를 ‘복을 빌다’는 뜻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나온 일어성서는 한결같이 ‘축복’을 ‘복을 빌다’와 ‘복을 내리다’라는 두 가지의 뜻으로 사용한다. 이와는 약간 다르게 현대 중문성경은 ‘축복’을 ‘복을 빌다’(『화합본』)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복을 내리다’(『사고역본』)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화합본 수정판』과 『대표본』의 경우 둘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지면 관계상 위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문성경 『브리지만-컬벳슨역』도 마찬가지이다.²⁵⁾

25) 한문성경 『브리지만-컬벳슨역』(1865)의 몇몇 경우는 다음과 같다. 창세기 12:3(“祝爾者我必福之, 詛爾者我必呪爾, 天下諸族必由爾獲福”)에서는 ‘축’(祝) 자를 ‘(복을) 빌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반면 민수기 23:20(“我奉命祝福, 其所祝之福, 我不能反之兮”)에서는 ‘축’(祝) 자를 ‘복을 빌다’와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다 사용한다. 또한 역대하 31:10과 시편 45:2와 시편 147:13에서는 “축복”(祝福)이 ‘(야훼/하느님께서) 복을 내리시다’라는 뜻으로 등장한다. 창세기 27:27에서는 “축”(祝) 자만 단독적으로 두 번 등장하는데, 앞에서는 ‘복을 빌다’라는 뜻으로 뒤에서는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등장한다. 창세기 27:29에도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祝爾者受祝]라는 표현 속에 “축”(祝)이 두 번 등장한다. 앞의 “축”(祝)은 ‘복을 빌다’라는 뜻이고 뒤의 “축”(祝)은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쓰인 듯하다. 신명기 23:20(MT 23:21)에서는 “축”(祝)이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반면, 신명기 24:13에서는 “축”(祝)이 ‘복을 빌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달리 쉐레셰브스키(Samuel I. J. Schereschewsky) 주교가 번역한 『시주교역』(1902)은 ‘축’(祝) 자는 거의 ‘복을 빌다’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창세기 27:29의 “祝爾者見祝”(축이자견축)은 ‘너를 위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는 뜻으로, 『대표본』(1854)의 “祝爾者必見祝”(축이자필견축)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은 표현이다. 앞의 “축”(祝)은 ‘복을 빌다’라는 뜻으로, 뒤의 “축”(祝)은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신명기 28:2에서도 “如爾聽主爾上帝之命, 則必受祝”(여이청주이상제지명 즉필수축)라고 하여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한글성경의 전통과는 다르게 ‘축복’이라는 말을 ‘복을 내리다’와 ‘복을 빌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다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볼 때 “하느님! 축복해주소서”라는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앞으로 나올 성경을 번역할 때에도 ‘복을 내리다’라는 뜻이나 ‘복을 빌다’ 또는 ‘복’이라는 뜻으로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²⁶⁾ 이와 같은 언어 습관은 같은 한자문화권에서 나온 한문성경이나 중문성경 그리고 일어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뿐더러 언어 사용 또한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주요어>(Keywords)

축복하다, 복을 빌다, 복을 내리다, 베라크(*ברך), 한글성경, 한문성경 대표본, 현대 중문성경, 현대 일어성서.

To bless, To pray for a blessing, To grant a blessing, bērak(*ברך), Korean Bible, Old Chinese Delegates' Version, Modern Chinese Bible, Modern Japanese Bible.

(투고 일자: 2013년 12월 31일, 심사 일자: 2014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3월 5일)

‘네가 네 하느님의 명을 들으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라는 뜻으로 ‘축’(祝)이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등장한다. 이 가운데에서 “則必受祝”(즉필수축)의 “受祝”(수축)은 『브리지만-킬벗슨역』(1865)의 창세기 27:29에 나오는 “祝爾者受祝”(축이자수축)의 “受祝”(수축)과 같이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다. 곧 ‘축’(祝)이 여기서는 ‘복을 내리다’는 뜻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28:3의 할주(割註)에서는 28:3-6의 “得福”(득복)을 “受祝”(수축)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웨레체브스키 주교가 번역한 『북경관화역 구약』(1874) 역시 ‘복을 빌다’는 ‘축복’(祝福)으로(창 27장[x12], 민 23:20, 25; 24:1, 신 24:13), ‘복을 내리다’는 “賜福”(사복)으로(민 23:20; 신 23:20; 시 45:2; 147:13) 대부분 표현하지만 “降福”(강복, 창 2:3; 27:27)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들 한문성경의 경우 모든 구절을 다 조사한 것은 아니다.

26) 일일이 다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한글로 나온 개인 번역 가운데 『쉬운 성경』(2006)이나 『우리말 성경』(2007)도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축복하다’라는 말과 ‘복을 베풀다’라는 표현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서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인터넷 ‘다음’에서 검색.
- 関根正雄 訳, 『旧約聖書 創世記』, 東京: 岩波書店, 2010 (원출판년도 1956).
- 旧約聖書翻譯委員會訳, 『旧舊約聖書 I: 律法』, 東京: 岩波書店, 2004.
- 『舊約全書』(E. C. Bridgeman, M. S. Culbertson), 福州: 大美國聖經會, 1896 (원출판년도 1864).
- 金元中 編著, 『虛辭大辭典』, 서울: (주)현암사, 2007 (원출판년도 2003).
- 金學主, 『新完譯 詩經』, 改訂增補版, 서울: 명문당, 2002.
- 刘重明 主编. 『经文汇编』, 上海: 中国基督教叁自爱国运动委员会·中国基督教协会, 2011 (원출판년도 1922).
- W. Lobscheid,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1866-1869, 웹사이트.
https://play.google.com/store/books/details/Walter_Henry_Medhurst_Chinese_and_english_dictiona?id=tM6rKpvOYWAC
- 马礼逊(Robert Morrison), 『华英字典 (影印版)』(*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第1-6卷, 马礼逊文集, 北京外国语大学 中国海外汉学研究中心·香港大学图书馆·澳门基金会 合作项目, 郑州市; 大象出版社, 2007 (원출판년도 1822)
- 『文理 舊新約聖書』 (British & Foreign Bible Society, Shanghai, 1933 [Ed. No. 2908], Wenli Bible, Delegates' Version) (원출판년도 1854).
- 민중서림 편집국 편, 『漢韓大字典』, 전면개정·증보판, 서울: 민중서림, 1997.
- 『圣经. 新約全書 附 詩箴』, 和合本修订版·新标点和合本 并排对照 (上帝版), 香港: 香港圣经公会, 2010.
- 『聖經 現代中文譯本修訂版』, 香港: 香港聖經公會, 1995.
- 『聖書 口語譯』, 東京: 日本聖書協會, 1991 (원출판년도 1955).
- 『聖書 新共同訳』(旧約聖書續編つき·引照つき), 東京: 日本聖書協會, 1993 (원출판년도 1988).
- 『新約聖經 并排版』(希腊文新约圣经·新标点和合本·现代中文译本修订版·吕振中译本·思高译本·英文新标准修订版), 上海: 中国基督教三自爱国运动委员会·中国基督教协会, 2012 (원출판년도 1997).
- 申葳 责任编辑, 『外研社精编英汉汉英词典』, 大字版,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0.
- 이환진, “한문성경 『대표본』(1854)의 번역 성격 - 전도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0 (2012), 1-20.
- 이환진, 『구약성서 속에서 노닐다』,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1.
- 『引照 舊新約 聖書』(문어역), 東京: 米國聖書協會, 원출판년도 1888.

- 任继愈 主编, 『宗教词典』(修訂版), 上海: 上海辞书出版社, 2009.
- 張玉書 等 編纂, 『康熙字典』, 北京: 中華書局, 2001 (원출판년도 1958).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编, 『现代汉语词典』, 第六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2.
- 전무용, “그리스도교 용어와 한자어에서 빌려온 용어”, 『신학비평』 51 (2013), 48-71.
- Camps, Arnulf, “Father Gabriele M. Allegra, O. F. M. (1907-1976) and the *Studium Biblicum Franciscanum*: The First Complete Chinese Catholic Translation of the Bible”, Irene Eber, Sze-Kar Wan and Knut Walf, eds., *Bible In Modern China: The Literary and Intellectual Impact*, Sankt Augustin, Germany: Institut Monumenta Serica, 1999, 55-76.
- Cohen, Doron B., *The Japanese Translations of the Hebrew Bible: History, Inventory and Analysis*, Leiden: Brill, 2013.
- Hong, Joseph, “The Challenges of the RCUV Project - Revising Genesis as a case in point”, 『성경원문연구』(*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17 (Oct. 2005), 148-177.
- Koehler, Ludwig, and Walt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HALOT)*, 2 vols., Study Edition, Leiden: Brill, 2001.

<Abstract>

**Is ‘祝福(축복)’ ‘To Confer a Blessing(복을 베풀다)’ or
‘To Wish a Blessing to Someone(복을 빌다)’
in Korean, Japanese, and Chinese Translations of the Bible?**

Prof. Hwan Jin Yi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at the Korean expression of ‘축복(祝福)하다’(to bless) used in Bible translations has both meanings of (1) ‘to confer happiness, as God’ and (2) ‘to pronounce a wish of happiness to someone’. There are two reasons to support this suggestion. First of all, most Korean Christians usually ask for blessings in prayer with the expression, ‘축복하소서’ which would mean “O God, bless us!” or the like. Second, modern Chinese and Japanese Bibles use the expression of ‘축복’(祝福) for both meanings mentioned above.

Korean versions of the Bible such as the Old Version (1911), the Revised Version (1938), and the Common Translation (1977) have traditionally differentiated ‘축복하다’, which literally means ‘to pray a blessing for someone’, from ‘복을 베풀다’, ‘to be given a blessing by God’. In contrast, modern Japanese and Chinese Translations of the Bible have not differentiated one from the other. By modern Japanese Bibles, I am referring to the Colloquial Translation (1955), the New Interconfessional Translation (1987), and the Iwanami Shoten Translation (2004). Modern Chinese Translations of the Bible include the Lu Chen-Chung Version (1970) and the Catholic Studium Biblicum Version (1968). Somewhat different from these Bibles, the Old Chinese Delegates’ Version (1854) and the Japanese Meiji Translation (1888) take the Hebrew verb *bērak*(*ברך) literally as both ‘(God) to grant a blessing to someone’ and ‘(human) to pray to give a blessing to someone’. Interestingly enough, the English-Chinese Dictionary (1866-1869) by W. Lobscheid lists both meanings of ‘祝福’ to the entry of ‘to bless’.

Korean language belongs to Chinese character culture so we Koreans can follow both usage of ‘祝福’ in the Chinese and Japanese Bible translations. Nowadays Koreans use the expression of ‘축복’(祝福) to imply both meanings. Indeed, the language itself has been changing over the time.